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519 호 현대불교
2025년 2월 19일(음 1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하늘이 무너져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내놓을 수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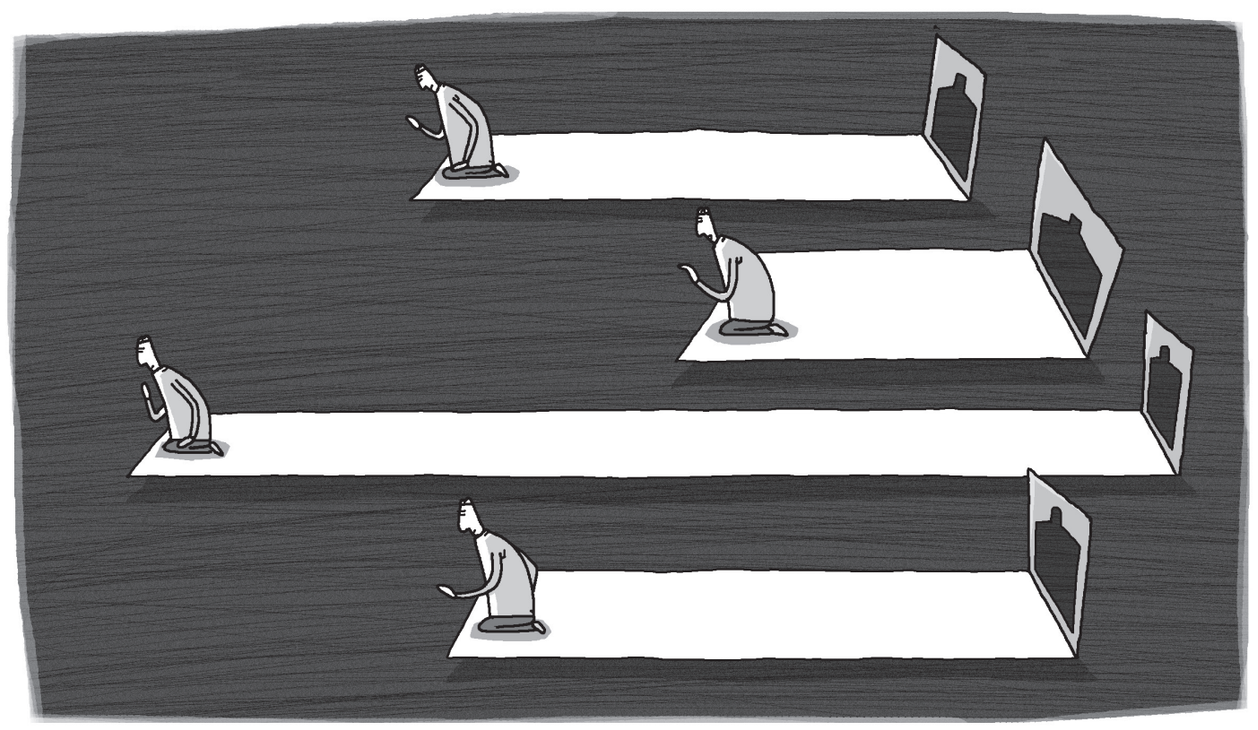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입춘이 돼서 정락 스님께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입춘이라 함은 봄이 오는 소식을 갖다 주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앞으로 다가오는 소식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몸보다 마음으로부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것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요새 한 팔, 한 다리가 떨어진 것처럼 나답지 못하게 색신이 아쉬웠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만난 지가 여러 해 됐고요. 아마 십 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처음, 누구한테도 그래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랴. 누구한테 내가 가르침을 주랴. 사무장님 한 분 떠났는데 색신이 아쉬워서 이렇게 아픈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죽고 한 번 살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 망하고 세 번 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허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데에 팔자 운명이나 이런 것을 타파하고 그 고비만 넘긴다면 아마 오래 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너무나 그 죽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관계상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로부터 한번 엮어 봤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한다고,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일을 하십시오. 누구한테 물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의학 한 점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나 또 가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색신이 망가지고 그러면 일을 못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건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요즈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한테 이익을 갖다 줄 수 있고, 여러분한테 거짓을 하지 않고, 누구를 팔아서 하지 않는다고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걸 실험을 해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내려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짓을 하려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다본다면 너무나 처참한 일이지마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풀 한 포기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답지 않게 글쎄,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말이 자꾸 막히는군요. 그래서 억지로 참으면서 인젠 좀 더…, 웃어 주세요. 우리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가시라 하는 것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수화풍으로써 뭉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속에서 공기가 나고 또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수차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재료가 있어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될 테죠.

그래서 우리는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청정함이 있다고 하고 또는 여여하다고 하고, 들이고 냄도 역시 육근, 육식이 십이처라고 하고 육근, 육경, 육식을 바로 십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했지 아주 상세한 거, 이해가 가게끔 하는 거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가설이 돼 있듯이 우주 법계가 그렇게 가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라면 전부 세포에 가설이 돼 있듯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면서 세포에 가설이 돼 있는데 이걸 법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 국토의 법계. 그러면 이것도 국토라고 할 수 있지마는 이 지구상도 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토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세포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세포의 모든 법계가 인간의 법계에 모두가 계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계합이 돼서, 즉 말하자면 가설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주하고도 가설이 돼 있고요, 혹성끼리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인간마저도 지금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법상을 두드리시며)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질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첫째, 이것부터 얘기하죠. 여러분이 A형이라면 B형을 넣어서는 안 되죠, 피를. 기(氣)가 없고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땐 기를 돋워 주고, 병의 정체를 파악해서 그 모두를 딱 거기에 맞도록, 용도에 따라서 간암이면 간에 좋은 것을 딱 넣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에는 A형의 피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거와 다름없이 우리가 지금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가설이 다 돼 있는데 우린 지금 "거기다, 주인공에다 맡겨 놔라.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한다." 할 때 가설이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눌러지듯 자동적으로 눌러집니다, 이게. 법계 이 자체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냐, 냄새를 맡고 사는 거냐, 또는 먹고 사는 거냐.' 이 세 가지를 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중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냄새 맡고 사는 세곈 어떤 세계냐? 그거는 죽어서 그냥 냄새만 맡고 사는 영령들을 말하죠. 마음으로 사는 세계는 어떤 거냐? 이 공부를 다 한 사람들. 그럼 마음으로 사는 건 자재하게 자재력을 가지고 찰나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세계, 마음으로 산다면 죽어서도 자기가 눈 밝고 귀 밝아서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 배부르고, 생각하면 뭐든지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음으로 산다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벗어나야만이 진짜 마음으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